**어둠 속 과학 탐구 워크숍(1)-안대 체험 안내문**

2012년 과천과학관 과학문화융합탐구마당의 어둠 속 과학탐구 부스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만든 빛, 소리, 어림 교구를 이용해 시각이 있는 학생, 학부모님들이 안대를 끼고 시각장애역할놀이를 했습니다. 이때의 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탐구가 지극히 단순한 조작이거나 느낄 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랬을 까요?

아래 글은 시각장애를 가진 Austin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 Color Identifier을 이용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.

|  |
| --- |
| 다른 날 밤에,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. 난 [Color Identifier](http://itunes.apple.com/us/app/color-identifier/id363346987?mt=8) 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. 이 앱은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색상의 이름을 읽어주었다. …내 생전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. 난 몇 개의 빛과 색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단지 흐릿하게 보일 뿐이고, 각 사물들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원일 뿐이다. 내가 처음 이걸 새벽 3시에 시도했을 때, 난 왜 앱이 계속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. 그러다 스크린 커튼 기능이 카메라도 차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그것을 꺼버렸지만, 여전히 계속 매우 어두운 색만을 가지고 있었다. 그리고 나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냈고, 밤에는 많이 볼 수 없을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…. 출처 : <http://xguru.net/623> |

Austin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기구로 스스로 빛과 어둠에 대한 학습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습니다. 저희도 점점 증가하는 통합학급의 과학탐구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어둠 속 참다운 탐구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. 새로운 어둠 속 체험과 시각장애 학생의 과학교구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은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.

* **운영시간** : 2.22(금) 1차(오후14시40분~), 2차(오후15시40분~)

2.23(토) 3차(오전 9시40분~), 4차(오전10시40분~)

* **장소** :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B동 3층 351호 실험실
* **예상 소요시간 :** 60분
* **참여방법** : 제한된 인원이 가능함으로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신청(paksj@snu.ac.kr) 바랍니다.
* **담당 :** 임성민 교수

**안내 :** 박지연(Tel. 010-4595-3872, gooddry@naver.com)

아래 실험실 도면을 참고해 입실 부탁 드립니다. 정문으로 운영 시작 15분 전 입장해 접수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부탁 드립니다. 설문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체크리스트 형태입니다. 이 후 대기실에서 입장 시 유의사항을 듣고 안대를 착용 후 실험실로 입장 후 안내원의 지도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 체험 후에는 경험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.

